

농 촌 잠 언

박 훈 서(목사, 충주 야촌교회)

● 봄에 깎 병아리 가을에 와서 세어본다.

토종닭들을 길러보면 병아리를 깎 때 품에 꼭 안고 숨기기 때문에 병아리의 수를 세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것이다. 그래도 제 때에 세어놓아야 관리에 용이하다. 들짐승이 잡아갔는지 병이 들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한다. 봄에 깎 병아리의 수를 가을에 센다는 것은 어떤 일이든 시기를 놓치게 되면 좋은 성과를 얻지 못하게 됨을 이르는 말이다.

● 띠가 성하면 길도 막는다.

벼과 식물인 띠는 마디가 있는 땅속줄기에서 위로 줄기를 뻗는데 80cm 까지 자란다. 처음 줄기를 뻗을 때는 키도 작고 잎도 무성하지 않지만 다 자라면 길을 막을 정도로 그 성장세가 대단한 풀이다. 겨자씨가 작은 것이지만 다 자라면 새가 깃들게 되는 성서의 비유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속담이다.

● 말 타면 종 두고 싶다.

누가복음 12:16-21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말의 소출이 쌓아둘

곳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되자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을 쌓아 두고 잔치를 벌이며 즐기며 살려한다. 이에 하나님이 오늘밤에 너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고 경고성의 교훈을 하신다. 더 많이 누리려하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. 말을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는가. 기본생활이 되고 난 후에 얻는 재물은 나누는데 쓰고 하늘에 저축해야 마땅한 일이다.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이치를 알아야할 것이다.

● 생마 갈기 외로 질지 바로 질지

갓 태어난 말의 갈기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지 그 방향을 예측하지 못함을 이른 말인데 사람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 인지는 어려서는 분간할 수 없음을 나타낸 말이다.